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 AUG 27 1962
Copy ____

1961년 11월호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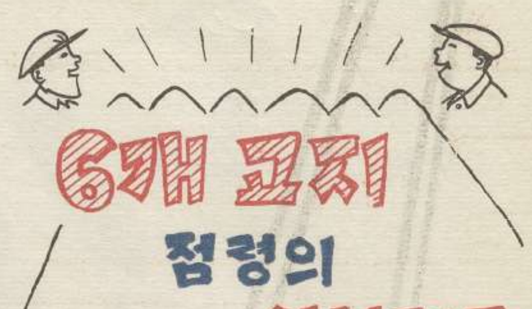
화살

송 시엽 그림

같은 위치에 있는 두 고지

《동무들은 지난 전쟁 시기에 인민군 용사들이 1211 고지를 고수하듯이 명년에 50만 톤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고 고수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 고지들을 다 점령할 수 있다》
(1961년 9월 22일 황해 제철소에서의 수상 동지의 교시 중에서)

 홍 종호 그림



6개 고지 점령의 선봉대들

갑 여보게 덕삼이— 덕삼이(부른다) 자네 그래 나를 보고도 본치 만치 하긴가?

을 상철이군! 가만 있게, 있다가 좀 만나세, 지금 전투 중이 돼놔서 눈 코 뜰 새가 없네.

갑 이 사람이 미쳤나? 정전 된지가 10 년이 되여 오는데 아직 전투 소리만 하구 돌아치니…

을 전투라도 이만 저만한 전투가 아닐세.

갑 이만 저만한 전투가 아니라구?

을 그럼, 우리의 전투 여하에 따라 6 개 고지의 전투 승부가 좌우되니까!

갑 그것 그럼 심각한 문제인데…

을 심각한 문제구 말구, 좀 들어 보게! 산에서, 들에서, 거리와 마을에서, 공장과 광산에서, 지어는 바다에서까지 철철철… 하지 않는가.

갑 그거야 그럴 수 밖에. 우리 나라는 그 어디를 가나 관개 시설망이 거미줄 같이 엉켜서 춘하추동 맑은 물이 철철 흐르고 있으니까!

을 이런 답답한 친구라구. 농민은 그저 물 밖에 모른다니까!

갑 그럼 물이 아니란 말인가?

을 이것은 말이야. 짓고, 짜고, 캐고, 잡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물건이란 말이야!

갑 아주 귀중한 물건이라?!

을 그럼, 래년에 6 개 고지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자고 해도 더 많은 뜨락또르와 농기계가 있어야 하구, 집을 짓는 데두, 천을 짜고 탄을 캐는데두,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데두 기계를 만드는 강철이 필요하단 말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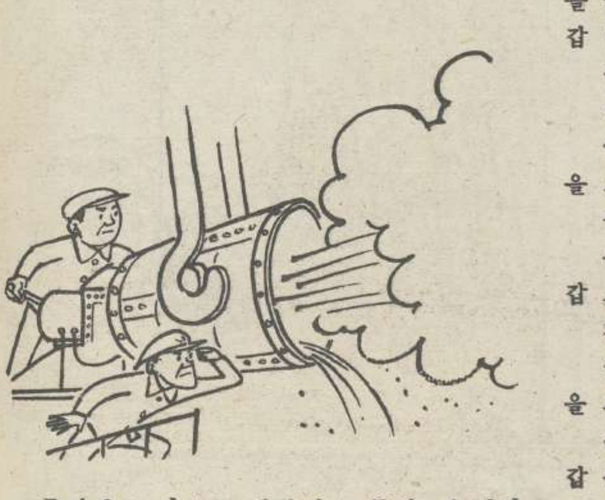
갑 그렇지 그래 천리마의 기세로 냅다 달리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더 많은 강철이 요구되니까!

을 그럼.

갑 여보게 그리구 보니 자네는 6 개 고지 점령의 선봉대인 동시에 기계의 할머니 벌이 되는 셈이구려!

을 이 사람이 빰이 새'파란 젊은이를 보고 파파 늙은 할머니라니?…엑키 이 사람.

갑 노하지 말게. 그만큼 자네는 장하단 말일세, 자 보게, 기계의 어머니가 강철이라면 자네는 강철을 만들어 내는 용사니까 따지고 보면 기계의 할머니 벌이 되지 않나! 아하하하… 군데 여보게 내 방금 강철 직장 용사들의 전투 장면을



구경하고 나오는 참인데 그들의 눈에서 불이 펄펄 일드구만!

을 자네는 전투를 누워서 떡을 먹어 가며 하는 줄 알았나?

갑 아니, 상상 이상 치렬한 전투드란 말일세!

을 이 사람아 그럴 수 밖에…

갑 그저 여기서도 축, 저기서도 축, 축축하드구만!

을 축축하다니?

갑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강 시간 단축과 평로의 리용률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구 말이야…

을 그렇네, 제강 시간을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그만큼 더 많은 강철이 나오게 되는데 어찌 그러지 않겠나.

갑 그런데, 여보게 얘기를 들으니 제강 시간 단축을 위하여 자네들이 모진 애를 썼드구만!

을 고마우이. 명년도 강철 120 만톤 고지 점령은 문제 없지…

갑 문제 없다 말이지!

을 그렇지!

갑 우리 농민들도 알곡 500 만 톤 고지 점령은 문제 없네.

을 우리를 항상 고무하고 승리에로 인도해 주는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이 하라는 대로 해서 잘 안된 일이 어디 있었나.

갑 아무렴, 자! 그러면 6 개 고지에 승리의 기'발이 휠휠 휘날리는 그날 우리 다시

한 번 만나세(악수를 나누며)

을 그러세, 또 만나세!

피 호주

법동의 산

《천하에 못살 산'골》로 알려진 궁벽한 법동은 오늘은 이곳 조합원들이 당이 하라는대로 산을 옳게 리용함으로써 금년에는 호당 4.5 톤의 알곡과 1,500 여 원의 현금이 차려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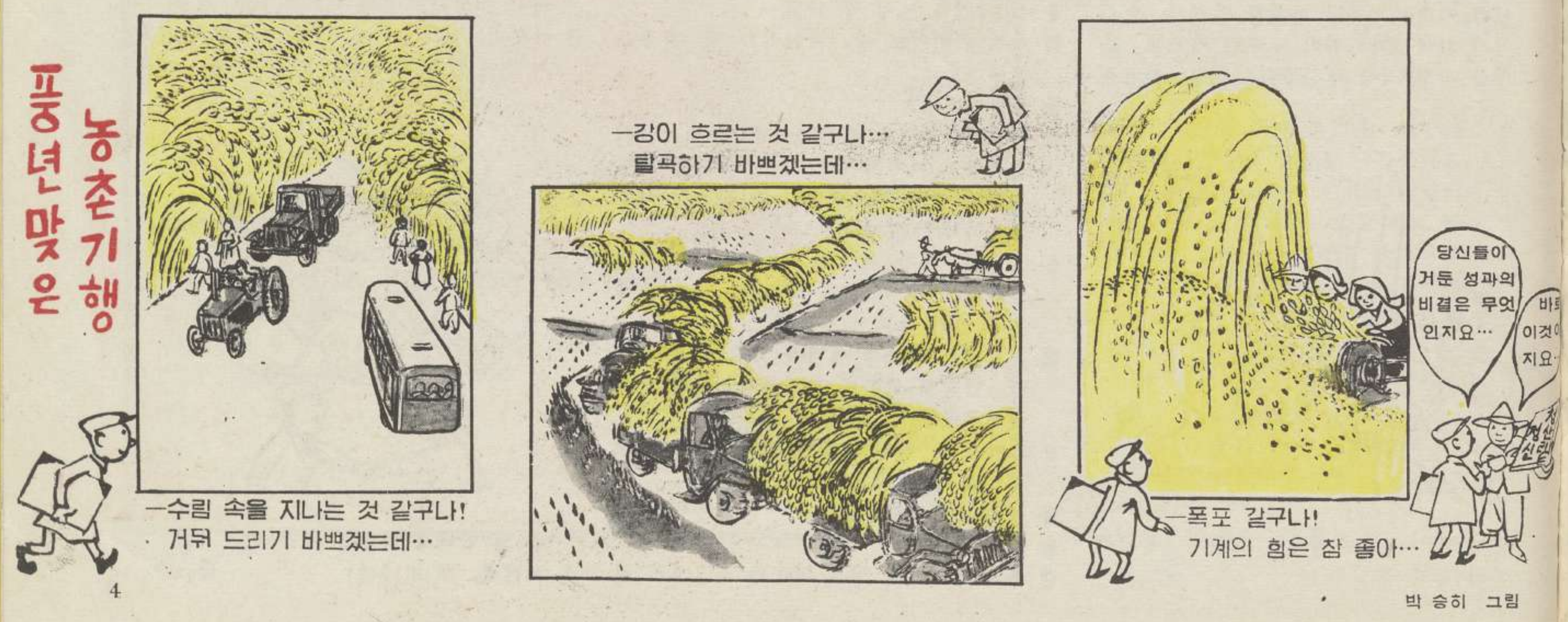
안 창수 그림

분배의 기쁨

안 창수 그림

—거참 몸집이 대단히 커졌는데요
—작년보다 2 배나 늘었지요

농촌기행 풍년맞은



박 승히 그림

풍년의 노래

안 충모

하늘은 맑고 단풍 붉어
바람'결도 선선한데
탈곡기야 와룽 와룽 돌아라
풍년이다! 알알이 만풍년!

보이나니 황금낟가리
들리나니 웃음과 노래
뜨락또르 운전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자동차도 먼지 일쿠며 신나게 달리네

도리깨 소리 멎기도 전에
와르르 달려온 지주놈이
종자 한 알 남김 없이
깡그리 앗아 가던 때는 먼 옛이야기…

오늘은 90이 환갑이라
칠순 백발 로인도
이팔 청춘 되살아 온다
벼가마니 넝큼넝큼 들어 섬기며
곡간 하나 더 지을 걱정을 하니
에헤영 쌀은 사회주의!
에헤요 백만 톤 증산일세

탈곡기야 와룽와룽 돌아라
몰라 보게 늘어난 축산의 돌돌이도
가금사의 빽빽이와 꼬게오도
풍년이라 춤추며 노래하거니
언제나 따뜻하게 보살펴 주는
깊고 깊은 당의 은덕에
황금의 알알 정성껏 골라 보답하자고
아낙네들은 고르고 또 고르며—

이른 봄 얼음'장 속에 뛰여 들며
객토를 퍼내던 꽃분이네 한쌍
분배 끝나면 잔치 차려 주자고—
가을은 가을마다 웃음 꽃피는
에헤영 쌀은 사회주의!
에헤요 백만 톤 증산일세

어서 돌아라 탈곡기야
마지막 벼'단을 어서 훑자
저기 새 땅을 갈아 엎는 브르도젤도
땅을 구르는 가을 갈이 뜨락또르도
어서 가자 손저어 부르거니
멀리서 새 봄이 노래하며 오고 있네
500만 톤 황금의 고지에로
큰 걸음 내어드디자, 진군하자
살진 땅이여, 기계화 군단이여,
종곡의 련단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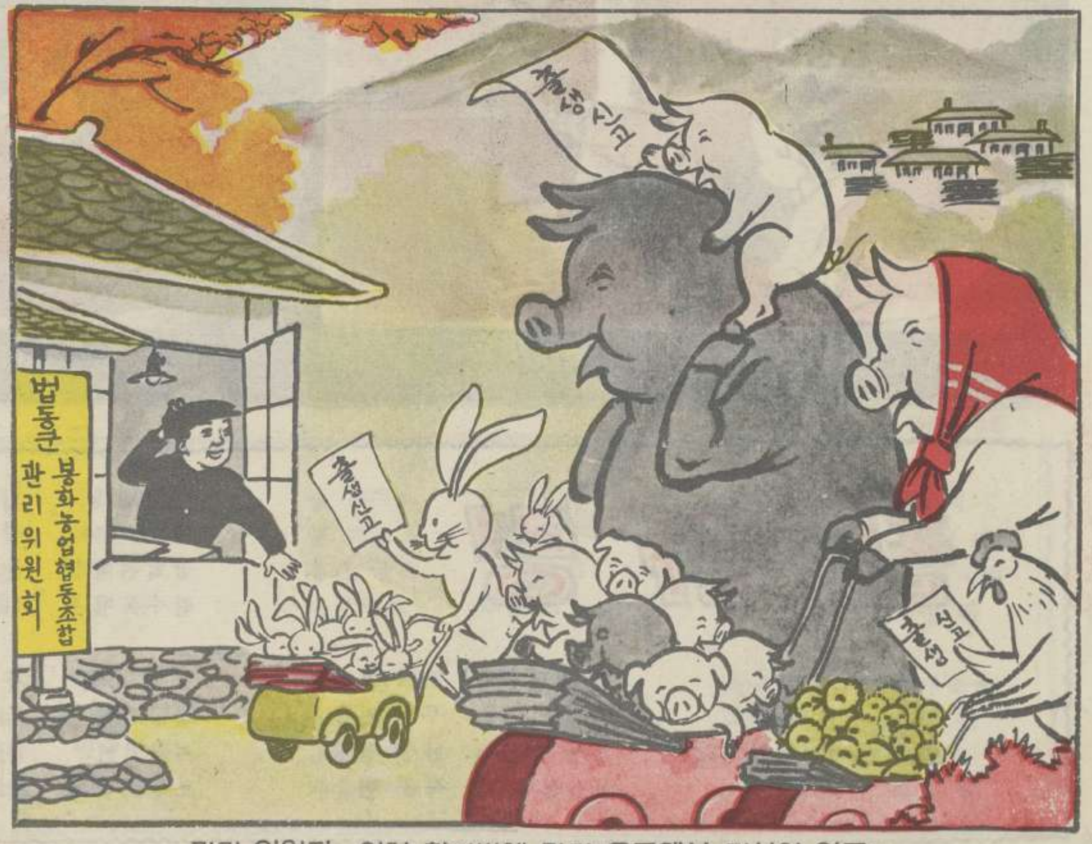
에헤요 쌀은 사회주의라네

위력한 삼지창

송 시엽 그림

법동군 봉화 농업 협동 조합 제 2 작업반 조합원들은 매 농가에서 돼지 두 마리, 토끼, 닭 각각 30 마리를 사육할 데 대한 당의 결정을 옳게 관철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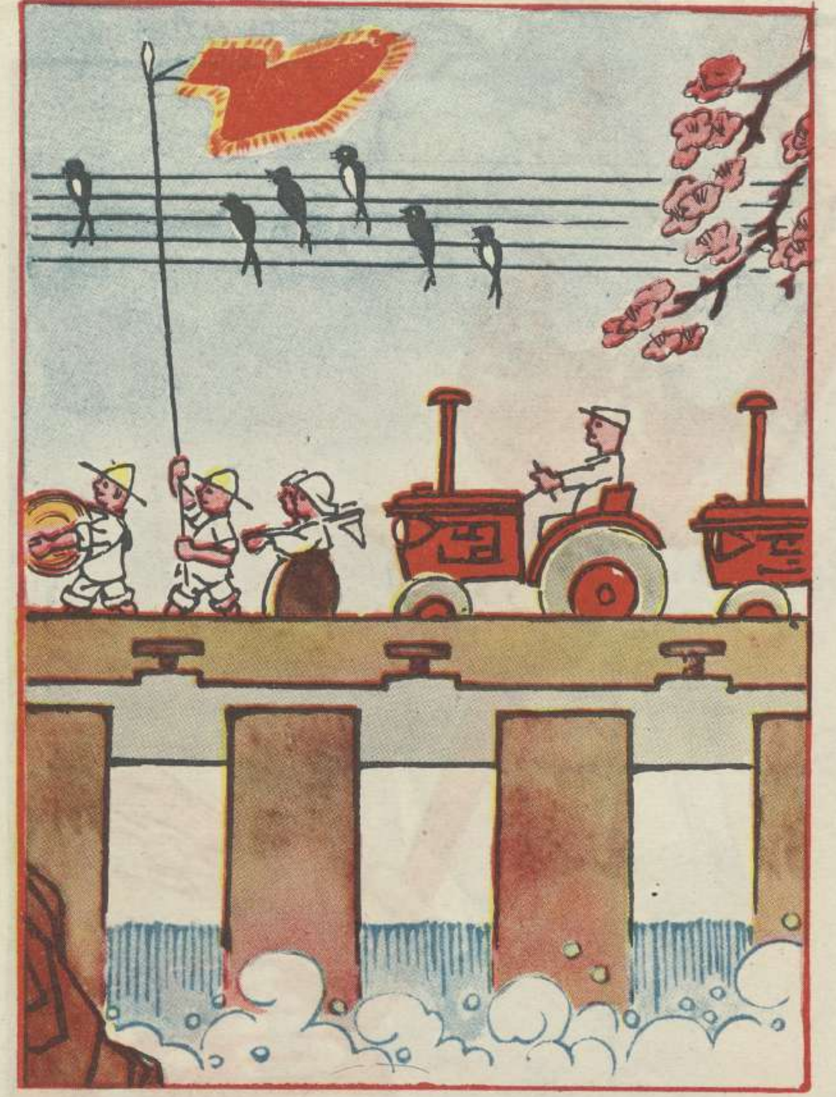
《자식》손자 늘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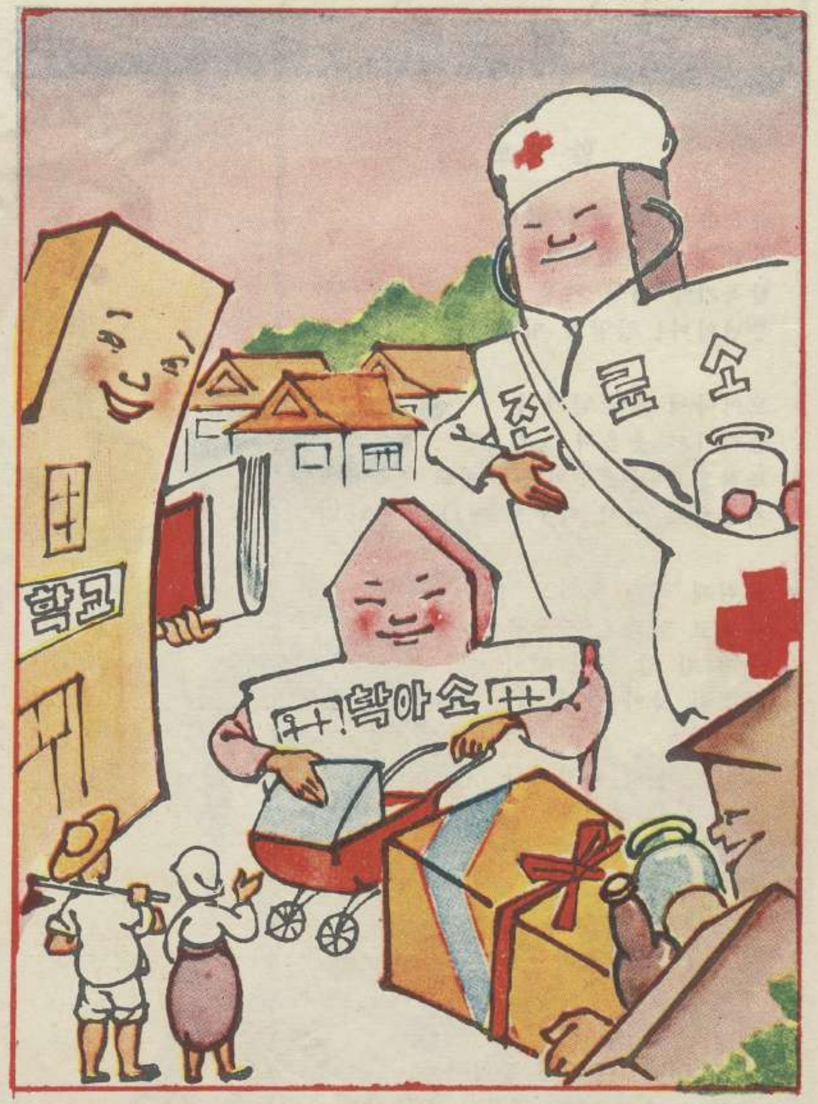
관리 위원장—이거 한꺼번에 밀려 오군해서 정신이 없군!
가축—우리 대렬은 앞으로도 더 늘 것입니다

원 광수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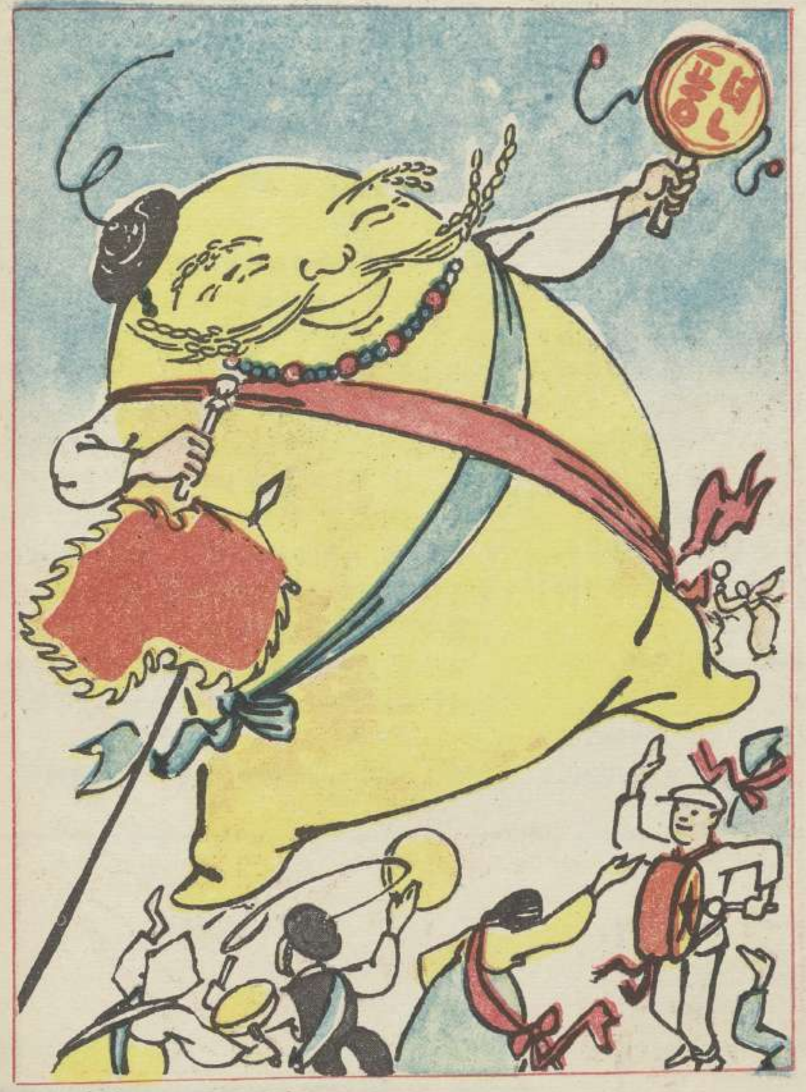
기술 개조 촉진되니 협동 로동 흥겹고나



문화 농촌 건설되니 우리 생활 보람차다



청산리 높은 정신 풍년 추수 맞이하고



새해의 새 풍작을 맞기 위해 마중가비

남반부

이른 봄부터 기아에 시달리고

장마진 여름철엔 병마까지 덮치누나

그나마 적은 추수 빚으로 다 뜯기우니

설한풍 오동지'달에 고향을 등지누나

최 영근 그림

판 타령

신 홍순

판 타령을 엮어 보자
이판 저판 무슨 판
군사 통치 난장 판에
인민들만 죽을 판

사천년래 민생고는
예나 제나 같은 판
팔백년래 물가고도
갈수록이 더한 판

량곡 수탈 가혹하다.
절량되여 굶는 판
겨울이면 랭방에서
오들오들 떨 판

전기'불이 없어 노니
밤만 되면 어둠판
수도마저 말랐구나
물고생에 난리판

의료 대책 말 아니다.
병만 들면 죽는 판
거리거리 실업 홍수
자살자만 느는 판

말은 좋다 농촌 부흥
알고 보니 속임판
어민들은 생활고에
돛대 잡고 울음 판

세금액만 올라 간다.
장사손도 터는 판
미국 상품 범람한데
민족 산업 녹는 판

재건 운동 시끄럽다
인민들만 볶는 판
국토 건설 한탑시고
강제 로동 못살 판

걸핏하면 체포령에
령장 없이 군 재판
세 사람만 마주서도
집회 위반 걸릴 판

입 가지고 벙어리요
눈 뜨고도 못볼 판
통행 금지 길 막으니
다니지도 못할 판

강제 징병 훌치기에
전쟁 준비 소동 판
간데마다 양키 만행
가슴통이 터질 판

못살겠다 집어치자
일어 나서 싸울 판
망해 가는 군사 정치
걸머질진 칠성 판

화근덩이 미제놈을
그냥 둬선 안될 판
미군 당장 나가라!
인민 심판 내릴 판

박 내숙

을지로에 사는 룡진이와 태평로에 사는 용근이와 신당동에 사는 순웅이가 명동 거리에서 만났다.

—얘 너 봤니?

중앙 극장에서 상영하는 모리스 쟈브로 감옥의 《비상선을 치라》는 영화 말야, 멋진 영화야… 안개낀 골목 길에서 암약하는 검은 그림자… 보고 있으면 몸에서 오싹오싹 소름이 끼쳐…

—자—식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시네마 코리아》(영화관)의 《사형가》가 더 실감이 나, 처음부터 랭혹 처절한 권총전으로 시작돼. 《사형은 내게 맡겨라》고 두니가 사형 청부를 맡고 나서는 장면은 그만이야!

—임마 서부 활극 치고는 《비장한 대결》 이상 없어.

—자식 그걸 가지고 넌 멀 큰 소리를 치는거야 《서부를 휩쓴 악한》을 보지 않았거든 서부 활극 얘긴 아예 하지도 말아. 반도 극장에서 지금 상영중이야. 가자.

퇴색한 미국 군복 웃도리에 방금 헤여질듯한 통이 좁은 《맘보 바지》를 입고 야구 모자며 낡은 캪 같은 것을 비스듬이 눌러 쓴 17—18 세 또래의 세 소년은 서로 밀리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면서 알숭달숭한 영화 광고들이 나붙은 명동 거리를 지나다가 어느 극장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거기서는 방금 《현상 붙는 사나이》라는 려객들을 터는 렬차 깽 미국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야 이것 봐라 새로 나온 영화구나 신난다! 이왕이면 새걸 보자.

소년들은 감도는 웅덩물에 말려 들어 가는 나무 잎처럼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 갔다.

× × ×

그때로부터 1 주일 후의 어느 날 밤 어둠침침한 서울역 대합실 한 구석에는 서로 이마를 맞대고 무엇인가 쑥떡 공론을 하는 세 명의 소년이 있었다.

—용근이 가져 왔어?

—이거

용근이는 품 속에서 예리한 단도를 슬며시 꺼내 보이고는 다시 품 속에 넣는다.

—우리두, 자.

나머지 두 소년도 저마다 옷자락을 헤치고 자루를 붕대로 감은 단도를 상대방에게 보인다.

—수갑은?

—걱정 마, 이 속에 있어, 어제 신당동 고물상에서 구했어. 돈만 주면 뭐던지야.

—됐다, 근데 성공할까?

—떨지마, 《현상 붙은 사나이》처럼 하면 되잖아? 수갑은 네가 채우고 찌르긴 순웅이가 찔러.

—임마 영화의 주인공 역은 내가 할테야, 수갑은 네가 채워.

—떠들지 마! 사람들이 들어.

밖에서 기적 소리가 났다.

—차'간에서 의논하자.

소년들은 출찰구로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그들은 몇 발자국도 못가서 뒤로부터 어깨 팔목들을 잡혔다. 그들의 등 뒤에는 용근이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어디를 가는거냐, 이리로 와!

이리하여 영화의 내용을 실 생활에서 재현해 보려던 세 소년의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것은 얼마전에 서울에서 실제 있은 이야기다. 이 신문을 보고 사실을 알게 된 뜻있는 서울 시민들은 문죄를 받아야 할 대상은 세 소년들이 아니라 미국놈과 남조선 위정자들이라고 한결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천진 란만한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범죄에로 이끄는 바로 그 장본인은 아메리카 생활 양식과 양키 문화를 남조선에 침투시키고 있는 미제와 그 주구들이기 때문이다.

박 정희의 일본 방문

박 승히 그림

이께다—야아! 아하하…
리 완용에게서 맛봤던 쾌감이로군!

침략의 닻

남조선 군사 정권은 최근 일본의 소위 《경제 사절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미제의 비호하에 남조선에 기여든 《일본 경제 사절단》은 남조선에 일본 독점 자본을 부식시키기 위한 침략적 흉계를 품은 일본 반동 지배층의 척후병이다.

홍 종호 그림

미제의 조종 하에서

백 인균 그림

미제는 일본 군국주의 계층과 남조선 파쇼 도당을 야합시킴으로써 남조선에의 일본의 진출을 실현하여 남조선에서 위기에 직면한 미제의 통치 지반을 수습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동북 아세아 동맹》을 기어히 조작하려고 《한일 회담》의 직접적 조정자로 나서고 있다.

박 정희의 《방미》 극

백 인균 그림

백악관의 우두 머리들은 박 정희와 이른바 《회담》을 하고 지시를 주는 한편 그를 미국 각지로 순회시키면서 《성명》도 외우게 하고 《연설》도 시키는 등 꼭두각시 놀음을 시켰다.

김 오준

가을철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흐뭇한 계절이다.

그러나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가을철이야 말로 가장 무시무시한 계절이다.

농민들이 등뼈가 휘도록 지어 놓은 낟알을 털도 안 뜯고 통채로 삼키려는 놈에, 권세 믿구 빼앗아 가는 놈, 얼렁뚱땅 얼려 먹으려는 놈, 다짜 고짜로 뭉청 잘라 가는 놈, 염치 없이 뜯어 가는 놈, 지지골골이 뒤져 가는 놈, 악착스레 긁어 가는 놈, 지긋지긋이 밝아 가는 놈, 닥치는 대로 들고 가는 놈에… 좌우간 엿가락에 깨알 붙 듯, 물 박에 쌀알 붙 듯 다닥다닥 달라 붙어서 농민들의 등 기름을 짜가는 판이다.

오늘도 칠성이네 집 마당에는 별의 별 화상들이 다 모여 든다. 이들은 마치 떡 본 도깨비처럼 칠성이네 가을 마당질을 보고 찌여 드는 것이다.

맨 처음에 나타난 놈은 지주 《백 돼지》였다.

키는 난쟁인데 몸은 몹시 똥똥하여 걸어 다니기보다 굴러 다니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백 돼지》는 아기적 거리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칠성이, 칠성이, 임자 거 어떻게 헐 텐가? 앙? 아니, 사람이 그래두 량심이 있어야지, 남의 땅을 붙이면 이렇게 땅 임자가 나서서 재촉하기 전에 으레 소작료를 갔다 바쳐야지…》

《글쎄 보시다 싶이 아직 마당질두 채 끝나지 않았는걸요.》

《칠성이, 그러면 그렇다구 진작 애기라두 있어얄게지… 좌우간 건 그렇구, 임자 거 지난 봄에 갖다 먹은 보리쌀은 어떻결 텐가?》

《어떻거다니요?》

《쌀로 주겠는가, 돈으로 주겠는가 말일세…, 내 그 때에두 애기를 헌다는 게 그만 홀딱 잊어 버렸네만, 가부간 건 그 때 시'가를 가지구 오늘 쌀 값으로 환산해서 쌀로 주는 게 좋겠네.》

《아니 그럼 그 때 보리쌀 한 말 갖다 먹은게 입쌀루 해두 몇 말이나 되는데요. 아니 그런 법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나요…》

《험—, 칠성이…그렇게 생각헐 게 아니야, 좌우간 긴 말 헐 게 없이 내 얘기 헌 대루 그렇게 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때 갖다 먹은 바로 그 보리쌀을 주게… 내 집 보리쌀은 유표해서 보면 인차 나타나느니…그럼 난 바빠 가 보겠네.》

《백 돼지》가 물러 가자 이 번에는 황 치부가 씨근덕거리며 달려 왔다.

《칠성이, 거 자네가 갔다 쓴 돈은 변리까지 합쳐서 당장 주어야겠네, 헌데 돈으로 못 주겠으면 쌀루라두 갚아 주게… 내 오늘 래일 사이루 급히 써야 될 일이 생겨 그러네》.

황 치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번에는 웬 양복쟁이가 나타났다.

《댁이 김 칠성이요?》

《수리 조합비를 받으려 왔는데요.》

《아니 재작년 장마에 제방이 터진 뒤에 작금 량년에야 어디 물을 한 방울이나 줬나요?》

《글쎄 거야 내가 아우? 건 당국에 가서 얘기해 보시구려, 난 받아 오라는 지시만 받구 왔으니까요.》

이 때 군복 입은 관리 하나가 또 찾아 왔다. 빼빼마른 말라깽인데 보기에도 몹시 신경질적으로 생겼다.

《아니 무슨 망할 놈의 집이 이렇게 찾기가 힘든가… 젠장, 토지 수득세는 언제까지 바치겠는가 앙! 공납 기일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할테다…》

김 칠성은 어리둥절했다. 농사라고 짓기는 하였으나 아무리 북데기까지 그러 모은다고 해도 내라는 그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을 건 뻔하였다. 아침부터 마당 귀 한 귀퉁이에 오도카니 나와 앉아 있는 아이들이 가엾었다. 마당질이 끝나면 쌀 찧어 밥해 준다는 제 어미의 말에 좋아라고 날뛰며 손벽까지 치던 애녀석들—

이 때 동장이 얼굴이 벌개 가지고 들어왔다. 아마 어디서 술잔이나 조이 처마신 모양이다.

《칠성이!… 이거 큰 일 났네》

《……》

《아 글쎄 우리 마을에서 김 과부네와, 상호네랑 열 세 집이 작년과 금년에 마을을 떠나 가지 않았나?》

《……》

《그런데 이 놈들이 떠날 때 비료대며 무엇무엇해서 잘라 먹구 간 게 많단 말이야》

《아니,그 사람들이 잘라 먹구 가다니요?》

《그러게 말이지, 사람들의 속알 머리가 그래 가지고야 어디 잘 살 수 있나, 바가지 짝이나 찾지…》

여보시유, 거짓말 마슈…

그 사람들한테서 비료대며 모든 것을 받아 내는 건 내 눈으로도 똑똑히 보았구, 첫째루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두 작년에 우리 부락에서 비료대 미납자가 없다구 자랑까지 하지 않았소…》

《엉? 어—허허허…그랬던가… 허지만 그건 다 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 그 사람들은 안 냈단 말이야. 헌데 이 번에 그 미납분을 우리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얼마씩 보태서 내기루 했는데, 에-또 자넨 말이야, 가만 있자… 세 가마니 허구 조금 더 되는구먼… 허지만 세 가마니만 내게. 그러구 참 특별히 이 일 때문에 지금 지서장 어른이 나와 계신다는 걸 알아야 허네. 그럼 난 또 다른 집에 가 봐야겠네》 동장은 총총 걸음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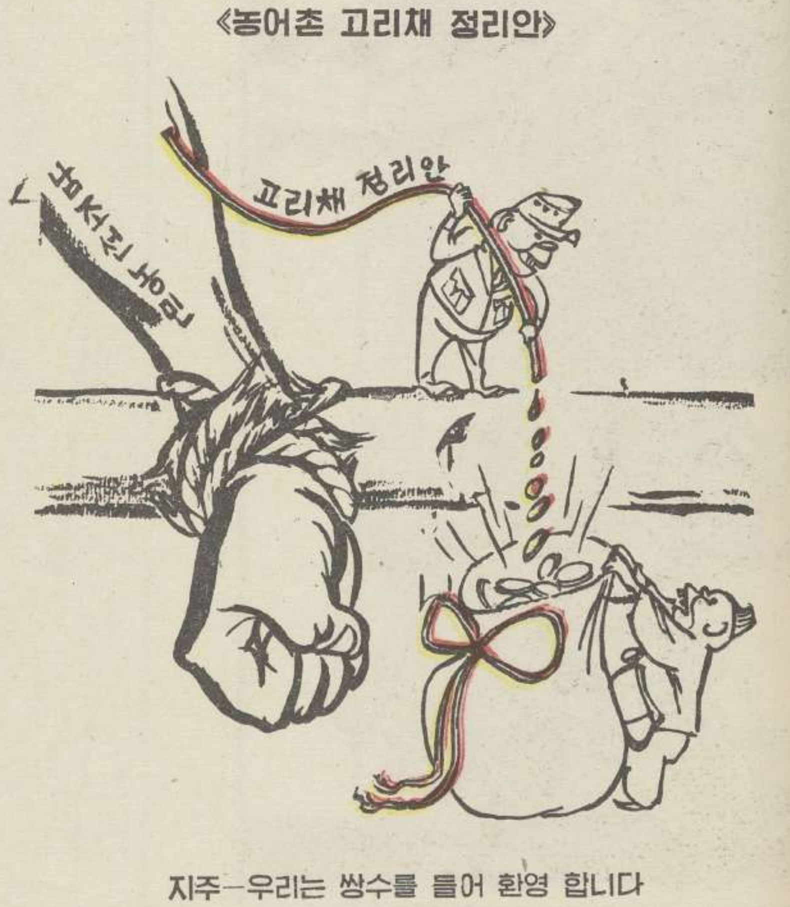
(흥, 제 놈들이 싹싹 해서 처 먹으려는 게지).

(칠성이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였다. 여윈 아이들에게 밥 한 그릇 못먹이는 죄가 바로 누구에게 있는가? 어째서 자기는 이렇게 빚쟁이들한테 물려야 하는가? 자기가 게으르기 때문인가? 아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고 힘 있게 일어 섰다.

줄 것은 없는데 먹을 놈은 많다

박 승히 그림

《농어촌 고리채 정리안》



지주—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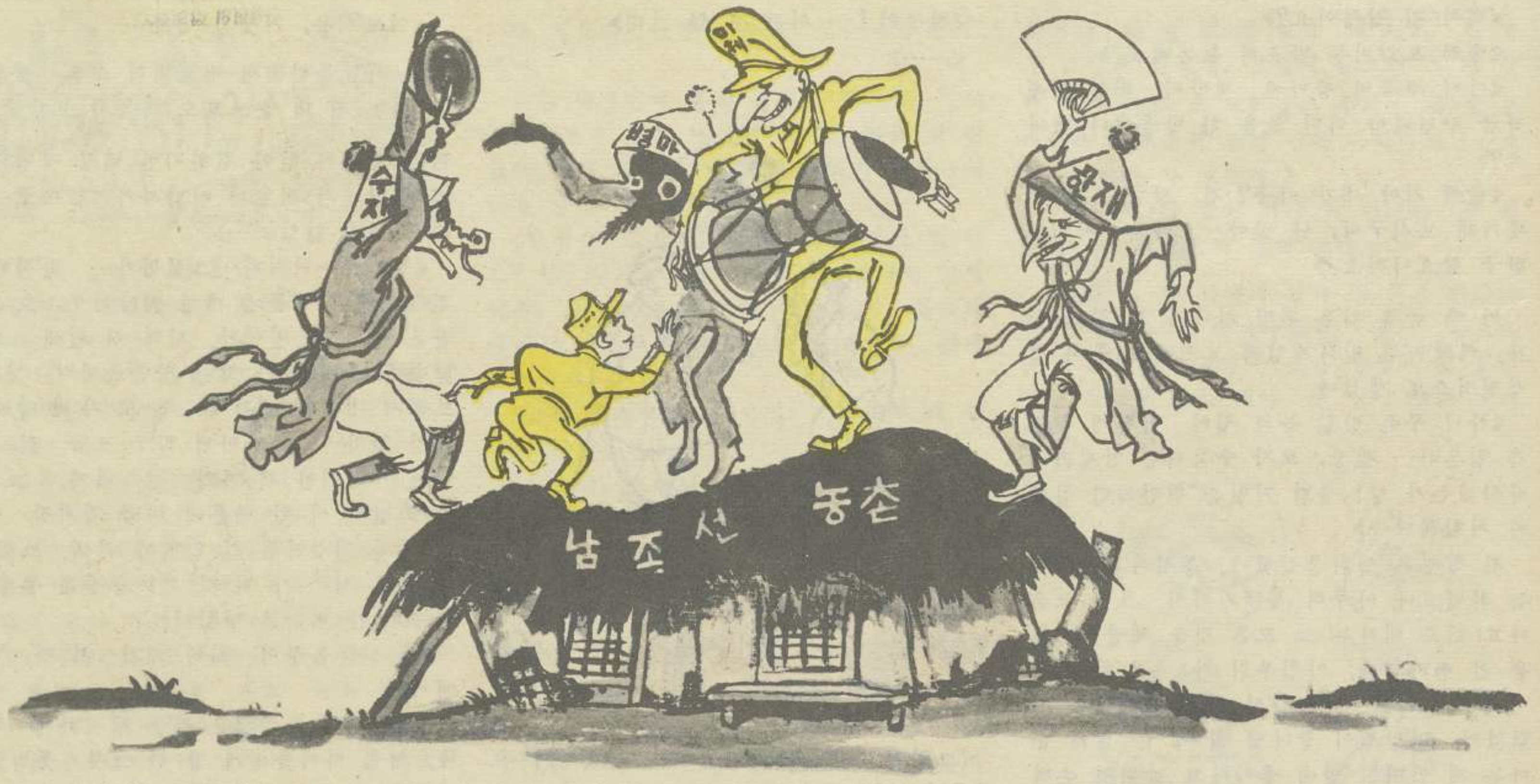
평양시 림 왈용 그림

짖눌렸다

남조선 농민들은 지주와 고리대의 채무 노예로 전락하였다. 오늘 남조선 농민들의 고리 부채는 1880 억환에 달하는바 이는 매 호당 약 10만 환 평균으로 된다.

원 광수 그림

흉 가



박 승히 그림

까부셔야 한다

 박 승히 그림

망할 세상 (8) (생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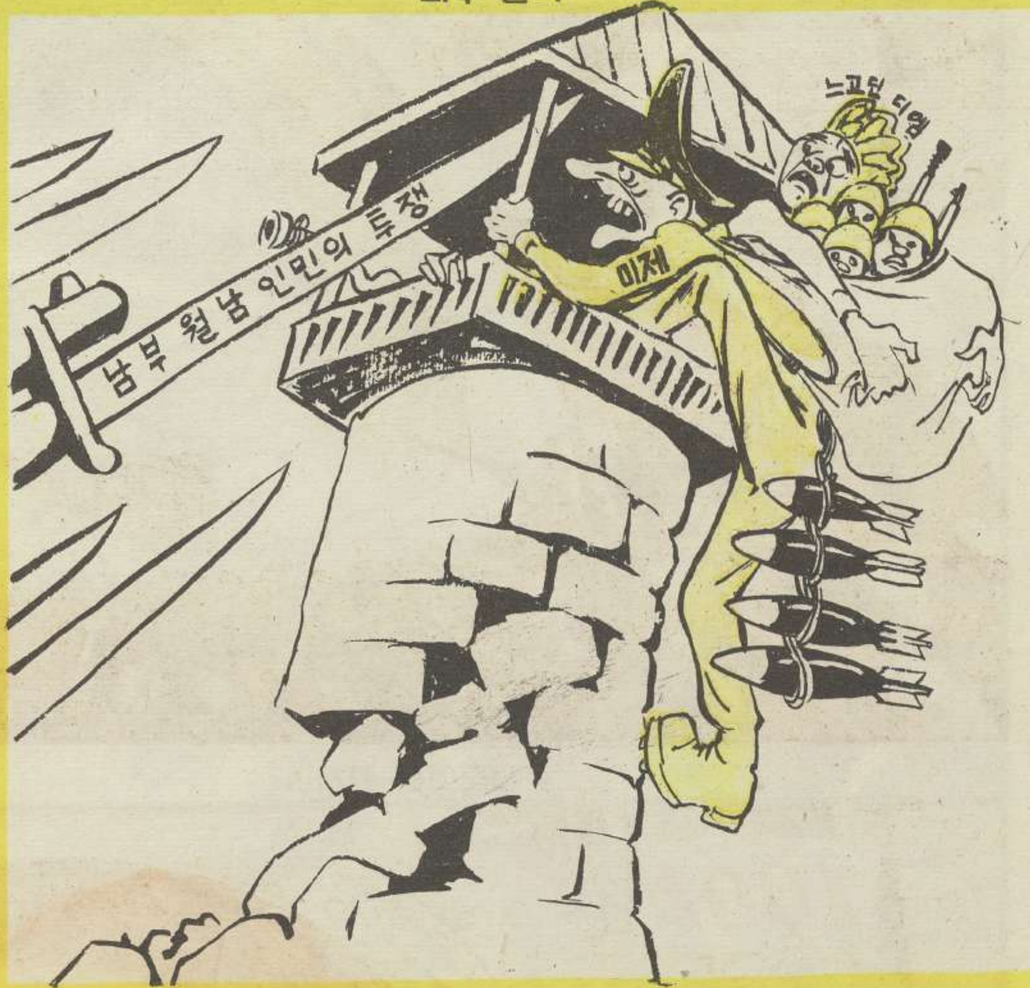
박 승히 그림

죽은 닭이 알을 날까?

조 명식 그림

최후 발악

최근 미제는 남부 월남에 대한 무력 간섭을 공공연히 감행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2 차 대전 때 타다 남은 불씨를 없애 치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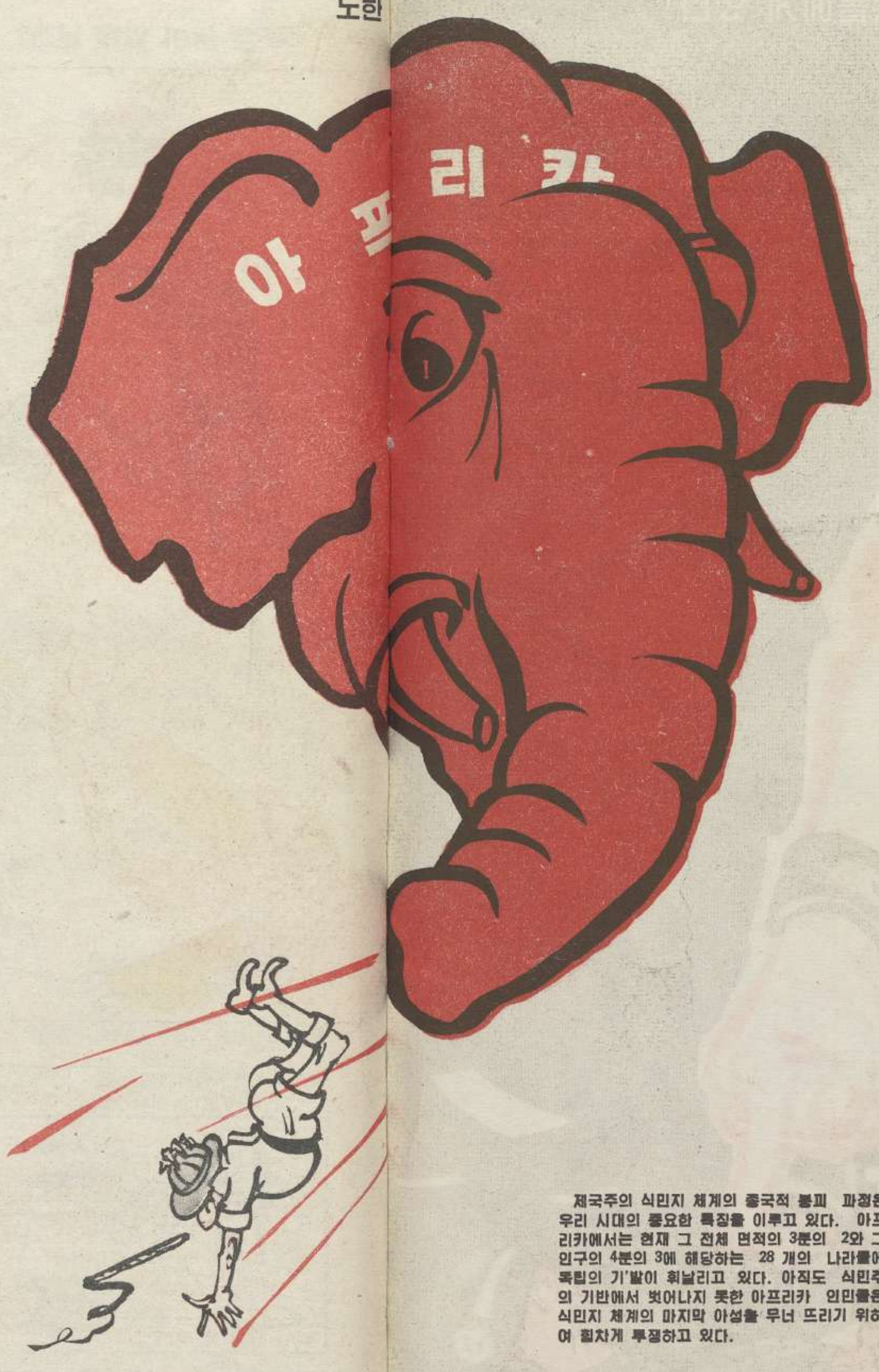
최 영근 그림

동궁을 향하여

공산주의를 향하여

김 성엽 그림

노한 코끼리



허 능택 그림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종국적 붕괴 과정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현재 그 전체 면적의 3분의 2와 그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28 개의 나라들에 독립의 기'발이 휘날리고 있다. 아직도 식민주의 기반에서 벗어나지 못한 아프리카 인민들은 식민지 체계의 마지막 아성을 무너 뜨리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두 길

《오늘 세계 무대에서 사회주의 력량은 제국주의 세력을 결정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는 부단한 앙양과 개화의 일로를 걷고 있으며 그 위력은 날로 더욱 장성하고 있습니다.》(김 일성)

제굴로 돌아가라

최 승칠

가련한 족속이로다.
너에겐 몸 바칠 한 쪼각 진리 없고
누리여 자랑할 청춘도 없다.
키다리 미군 잭슨,

도깨비 같은 네 키에 저주가 있으라
네 몸에 든 딸라 한 줌—
이는 짧게 살고 영원히 증오받을
너의 눅거리 몸뚱이의 값.

얼마나 너는 망상했는가—
조선의 운명이란 호주머니에 넣고
껌처럼 질근질근 씹을 수 있다고,
호령치면 모든 것이 엎드릴 것이라고.

조선은 중세기의 아프리카가 아니다!
도적에겐 칼방석인 조선의 땅!
들으라, 〈합정'골〉의 유령이 된
동료들이 울부짖는 넋두리를.

시대의 격랑은 휘몰아친다.
땅 우의 오물들을 쓸어 버리며.
휘몰아 친다. 네 놈들의 복마전을
혁명의 열풍 속에 불태워 버리며.

허락할 수 없다. 야수인 네놈
우리 땅을 딛고, 우리 하늘 보는 것을,
우리 겨레들 싸움에서 흘린 피를
헛되이 하려는 검은 야망을.

인민의 분노는 우뢰가 되여
네놈들을 벼락으로 쳐갈기려니,
이 땅에서 네놈이 살'길은 없다.
너는 죽음, 너는 송장.

보라, 땅은 발굴음에 진동하거니,
살아 있는 네 숨통이 아깝거든,
너는 네 신경이나 뜯어 먹으며
대양 넘어 제굴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네 몸뚱이를 뒤덮은
우리의 발'자욱들을 훈패로 삼고.
하여 질겁한 네 어미가 짐승이된 너의 말라 빠진 뺨을 후려 갈길 때,

모든 것이 너에게 침 뱉고 외면할 때,
너마저 너를 두고 전률하게 될 때
너는 온 아메리카 천지가 들썩하게
한 바탕 통곡이나 하려므나, 잭슨…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6032
발행 1961. 11. 20
(값 40 전)

8280
ХВАЛЬСАДЬ

죄는 네놈들에게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와 군사 정권은 애국적 인사들과 무고한 인민들에 대한 살인 재판을 련일 벌리고 있는데 진짜 범죄자로서 처형되여야 할 자는 남조선 인민들의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 활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며 인민들의 절박한 민족적 념원의 실현을 가로 막고 그들에게 무권리와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 미제 침략자들과 그에 추종하고 있는 반역 도당들인 것이다.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